

대인불안에 대한 인지적 평가(II): 한국판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자기 진술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연구*

조용래

김은정 원호택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 교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정신병리에서 인지를 강조하는 최근의 추세에 따라 대인불안에 대한 연구 및 치료에서 인지적 내용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자기 진술 검사를 번안하고, 그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번안된 자기 진술 검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자기 보고형 검사들을 대학생 278명에게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한국판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자기 진술 검사는 내적 합치도, 반분신뢰도 및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매우 높았으며, 공존타당도 역시 높았다. 또한 이 검사의 전체 점수, 두가지 하위 척도 점수 및 대부분의 개별 문항 점수들은 대인불안 高 집단과 대인불안 低 집단을 유의하게 변별하였으며, 이 검사는 우울 정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대인불안에 특정한 사고내용을 측정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밝혀져 변별타당도가 확인되었다. 요인분석 결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공포', '사회적 교류에 대한 자기 효능감', '긍정적 결과에 대한 예견', '실패 예상 및 회피 욕구', '합리적 대처' 등 5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그러므로 한국판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자기 진술 검사는 대인불안의 인지적 내용을 매우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하고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1950년대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심리학내의 인지혁
명은 임상심리학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인

간의 정신병리를 인지적인 혹은 정보처리적인 패러다
임 속에서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1970년대

* 이 논문은 1996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에 접어들면서 매우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권석만, 1994a; 권석만, 1994b). 정신병리에 대한 인지적 접근은 심리적 장애의 발생, 지속, 그리고 치료에 있어 '인지(cognition)'의 주된 원인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인지를 대체로 인지적 구조, 인지적 과정, 인지적 내용 및 인지적 산물이라는 개념들로 구분하고 있다(권석만, 1995; Ingram & Hollon, 1986). 그 중에서도 인지적 내용은 특정한 심리적 장애를 결정한다는 점(권석만, 1993; 권석만, 1994a; Beck, Brown, Steer, Eidelson, & Riskind, 1987; Bruch, Mattia, Heimberg, & Holt, 1993; Greenberg & Beck, 1989; Laurent & Stark, 1993)에서 매우 중요한 인지적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을 일컬어 '인지적 내용-특정성 가설(cognitive content-specificity hypothesis)'이라고 하며, Beck과 Weishaar(1989)는 이 가설에 따라 각 심리적 장애별로 특정한 인지적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수많은 학자들이 인지이론 및 인지치료에 관한 연구들을 수행하고 그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인지적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Heimberg, 1994; Zweig & Brown, 1985). 특히 정신병리에 대한 인지적 평가도구들이 인지적 내용을 측정하거나, 가설적인 인지적 과정이나 인지적 구조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Ingram & Kendall, 1987)에서 인지적 평가도구가 정신병리의 연구 및 치료에서 갖는 역할 및 유용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한 때 '버림받은 불안장애'라고 까지 불리기도 했던 대인공포증 혹은 대인불안에 대해 인지적 접근을 적용한 연구들이 1980년대 이후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다(Alden, Teschuk, & Tee, 1992; Bruch, Mattia, Heimberg, & Holt, 1993; Dodge, Hope, Heimberg, & Becker, 1988; Glass & Arnkoff, 1994; Glass & Furlong, 1990; Glass, Merluzzi, Biever, & Larsen, 1982; Heimberg, 1994; Heimberg, Bruch, Hope, & Dombeck, 1990; Mahone, Bruch, & Heimberg, 1993; Osman, Markway, & Osman, 1992; Turner, Beidel, & Larkin, 1986; Zweig & Brown, 1985 등).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우울증

및 일반화된 불안증의 경우와는 달리 대인불안 혹은 대인공포증을 주제로 한 인지적 접근의 연구들이 아직까지는 소수에 불과한 것 같다(예: 신민섭, 소준현, 홍강의, 1996; 이옥정, 1988; 이정운, 1988; 이정운, 1996; 정미순, 이봉건, 1997; 조용래, 원호택, 1997; 최정훈, 이정운, 1994). 특히 인지적 입장에서 대인불안을 연구하고 치료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며 대인불안과 관련된 인지적 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거나 변안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국내에서 대인불안에 대한 인지적 접근의 연구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인불안과 관련된 인지적 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대인불안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위해 흔히 사용되는 도구들은 자기 진술(self-statements) 혹은 자동적 사고(automatic thoughts), 인지적 특질(cognitive traits), 도식(schemata), 귀인(attributions), 기대(expectancies) 및 자가-지향적 주의(self-focused attention) 등을 측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Arnkoff & Glass, 1989; Heimberg, 1994). 이 중 대인불안의 인지적 내용을 평가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고 있는 도구에는 '비합리적 신념 검사(irrational beliefs test)'(신현균, 원호택, 1991; 최정훈, 이정운, 1994; Jones, 1969) 및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이정운, 1996; Leary, 1983; Watson & Friend, 1969) 같이 인지적 특질을 재는 검사와, 대인불안을 보이는 사람들의 자기 진술 혹은 자동적 사고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비합리적 신념검사의 경우 Ellis가 정의한 비합리적 신념들을 재는 검사로 개발되어 대인불안 관련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어져 오고 있지만, 신념 외에 부정적 정서와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를 재는 문항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 변별타당도가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다(Arnkoff & Glass, 1989; Haaga & Davison, 1993; Kassino, 1986; Smith, 1982; Smith & Zurawski, 1983; Smith & Allred, 1986; Zurawski & Smith, 1987). 뿐만 아니라, 대인불안에 특정한 검사가 아니라 하는 점과, 선행 연구들에서 대인불안 집단을 변별하

는 데에도 그렇지만 인지행동적 치료의 결과를 반영하는데 있어서도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보였다는 점(Arnkoff & Glass, 1989)에서 적용에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 역시 대인불안의 인지를 평가하는데 널리 이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인지와 정서가 혼입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Heimberg, 1994).

한편 대인불안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서 주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자기 진술 혹은 자동적 사고의 경우 그 측정방법에는 사고 재인법(endorsement method), 사고 생산법(production method), 사고 녹음법(recording method) 및 사고 표집법(sampling method) 등이 있다(Kendall & Hollon, 1981). 이 중에 사고 재인법과 사고 생산법이 대인불안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에서 주로 사용되어져 왔다. 전자는 대인불안을 경험할 때 사람들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자기 진술이나 자동적 사고의 목록(구조화된 질문지)을 미리 제시해 준 다음 개인으로 하여금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기 전, 하는 동안, 혹은 한 후에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그 빈도를 평정하게 하는 방법이며, 후자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기 전, 하는 동안, 혹은 한 후에 자신의 머리 속에 떠오른 사고들을 모두 직접 보고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자동적 사고를 채는 방법들은 단지 인지적 특질에 대한 자기보고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생하는 사고의 내용을 평정하는 것이므로 보다 생생하고 현실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정윤, 1996). 이에 더해, 대인불안의 자동적 사고를 채는 두가지 방법 중 사고재인법은, 실시와 채점이 용이하다는 자기-보고형 검사가 갖는 일반적인 장점 외에 실제로 대인불안의 인지적 평가에서 사고 생산법에 비해 더욱 민감하고, 유용성이 높다는 점(Glass & Furlong, 1990)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도구로는 Glass 등(1982)이 개발한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자기 진술 검사(Social Interaction Self-Statement Test)'가 있다.

이 검사는 원래 사회적 상호작용을 실제로 하는 동안에 개인의 머리 속에 떠오른 생각들을 평가하기 위

해 개발되었으나, 이후에 보고된 연구들에서는 원판의 경우처럼 사회적 상호작용을 실제로 한 직후에 측정된 연구들도 있지만(Glass & Furlong, 1990; Turner et al., 1986), 다른 형태로 변형시킨 방법을 사용한 연구들도 여럿 있다. 이를 테면, 가상적인 자극상황(예: 매력적인 여성과 처음 만나 데이트하는 장면)에 처했다고 상상하도록 한 직후에 측정된 연구(Osman et al., 1992; Zweig & Brown, 1985)가 있는가 하면, 지난 1주일간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각각의 생각들이 얼마나 자주 떠올랐는 지를 평정토록 한 연구(Bruch 등, 1993)도 있으며, 또한 사회적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각 사고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떠오르는 지를 평정토록 하는 일반적인 빈도 측정방법을 사용한 연구(Dodge et al., 1988; Heimberg et al., 1990)도 있다. 이처럼 대인불안의 인지적 연구에 널리 사용되고 있고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사용되고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자기 진술 검사들은 제각기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입증되었다(Glass & Arnkoff, 1994).

따라서 본 연구는 대인불안의 인지적 내용을 평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한국판 도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대인불안과 관련된 외국의 연구들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자기 진술 검사를 도입하여 한국판 검사를 제작하고, 이 검사의 신뢰도(내적 합치도, 반분신뢰도, 검사-재검사 신뢰도)와 타당도(공존타당도, 변별타당도 및 요인구조)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방 법

대 상

지방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278명(남자 235명, 여자 43명)의 대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평균 연령은 21.41세(표준편차 3.37세)였다.

측정도구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자기 진술 검사(Social Interaction Self-Statement Test: SISST). 이 검사는 원래 Glass 등(1982)이 역할연기 형식의 실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동안 개인의 머리 속에 떠오른 생각들을 곧바로 측정하도록 제작된 것이며, 긍정적인(촉진적인) 자동적 사고를 재는 15개 문항과 부정적인(억제적인) 자동적 사고를 재는 15개 문항 등 총 30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피검사자로 하여금 자신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동안 각각의 생각들이 얼마나 자주 떠올랐는지를 5점 척도(1점: 거의 떠오르지 않았다 ~ 5점: 아주 자주 떠올랐다)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긍정형과 부정형을 따로 채점하도록 되어 있고, 각 하위 척도별 총점의 범위는 15점에서 75점이었다. 이 원판 SISST의 반분신뢰도는 긍정형 .73($p < .001$), 부정형 .86($p < .001$)으로서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며, 공존타당도 및 변별타당도 역시 양호한 것으로 보고되었다(Glass et al., 1982). 또한 이성과의 교제 상황을 상상하도록 하여 측정한 SISST도 높은 내적 합치도와 함께, 공존타당도 및 변별타당도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밝혀졌다(Osman et al., 1992; Zweig & Brown, 1985). 그리고 대인공포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성과의 상호작용 동안에 각 자동적 사고의 내용이 얼마나 자주 떠오를 것으로 추측되는지를 평정토록 한 일반적인 빈도 측정법도 수렴타당도 및 변별타당도가 적절한 것으로 보고되었다(Dodge et al., 1988).

한국판 SISST는, 실시를 편리하게 하고 자료 수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Osman 등(1992) 및 Zweig와 Brown(1985)이 사용한 절차와 비슷하게, 실제 사회적 상호작용(역할연기)이 아닌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각자 생생하게 상상하도록 한 후에 각 자기 진술의 빈도를 측정하도록 설계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세가지 단계를 거쳐 제작하였다. 첫째, 대학생들이 대인불안을 느낀다고 응답한 상황들을 조사한 후(조용래, 원호택, 1997), 그 빈도가 높으면서 대표적인 상황 중의 하나로 밝혀진 ‘매력적인 이성과 처음 만

나 대화를 나누는 상황’을 선정하여 한국판 SISST의 지시문에 실었다. 참고로, 이 상황은, 본 연구와 비슷한 목적으로 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의 경우와 흡사한 것이다(Osman et al., 1992; Zweig & Brown, 1985). 둘째, Glass 등(1982)의 원판 SISST의 문항들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였다. 연구자 중 한명(제1저자)과,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심리학 교수가 각각 독립적으로 번역한 후에, 번역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른 번역 내용을 채택하였다. 번역은 가능한 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면서 동시에 자연스러운 문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역을 한 경우도 있었다. 셋째, Glass 등(1982)이 개발한 원판에서 피검사자로 하여금 실제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도록 한 직후에 검사를 실시했던 것과는 달리, 한국판 SISST의 지시문에는 아래와 같은 요지의 내용이 수록되었다. “(생략) 먼저 당신이 미팅에서 매력적인 이성과 처음 만나 자기 소개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한 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당신이 실제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처럼 최대한 생생하게 상상해 보세요. (생략)”. 이렇게 약 5분 가량 이성과의 미팅장면을 상상하도록 한 후에 검사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울러 한국판 SISST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의 척도들도 함께 사용하였다.

사회적 회피 및 불안 척도 II(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Scale II): SADS(II)). 이 검사는 Watson과 Friend(1969)가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하는 정도와, 잠재적으로 혐오적인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자기보고형 검사로서, 총 28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옥정(1988)이 번안한 한국판 SADS를 응답방식만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SADS는 원래 진위형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나, 점수의 분포가 편포되는 것을 피하고 개인간의 차이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극히 그렇다)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옥정(1988)이 사용한

한국판 SADS의 내적 합치도(Kuder-Richardson Formula 20)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한국판 SADS(II)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3이었고,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6($p < .0001$)이었다.

대인불안척도(Interaction Anxiousness Scale: IAS). 이 검사는 Leary(1983)가 사회적인 교류 상황에서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불안감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서, 총 15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남재(1995)가 우리나라 말로 번안한 한국판 IAS를 사용하였으며, 이 검사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8, 3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0($p < .001$)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IAS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가 .89였다.

자의식 척도(Self-Consciousness Scale: SCS). 이 검사는 Fenigstein, Scheier 및 Buss(1975)가 개인이 주의의 초점을 자신의 내부에 두는 일반적인 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하였으며, 23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형 검사이다. 이 검사는 세가지 하위 척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사적 자의식(private self-consciousness) 하위 척도는 자기의 느낌과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성향을 재고, 공적 자의식(public self-consciousness) 척도는 다른 사람들 눈에 자기가 어떻게 보일까, 즉 사회적 대상으로서의 자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성향을 측정한다. 그리고 사회적 불안 하위 척도는 공적 및 사적 자의식의 결과로 생기는 대인불안 성향을 재다. 본 연구에서는 이주일(1988)이 번안한 것을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언어표현만 약간 수정한 한국판 자의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훈진과 원호택(1995)에 의하면, 한국판 자의식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사적 자의식 .88, 공적 자의식 .88, 사회적 불안 .89, 그리고 전체 척도 .94였으며, 2주 간격으로 실시하여 얻은 검사-재검사 신뢰도의 범위는 .68 ~ .77이었다.

사회적 자기 효능감 척도(Social Self-Efficacy

Scale: SSES). 이 검사는 Alden 등(1992)이 사용한 척도를 기초로, 특정한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 대해 개인 자신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조용래와 원호택(1997)이 제작하였다. 이 척도에 포함된 상황은 모두 8가지의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으로서, 예비 조사연구를 통해 대학생들이 대인불안을 잘 느낀다고 보고한 상황과, 한국판 IAS의 내용을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이 척도는 피검사자로 하여금 특정한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 대해 본인 스스로 얼마나 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정도를 11점 척도(0점: 전혀 해낼 수 없다 ~ 10점: 정말 잘 해낼 수 있다)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별로 8가지 상황 각각에 대해 평정한 점수 모두를 합산한 점수와, 이성관계와 관련해서 묻는 두가지 문항에 대한 점수를 합친 점수 등 2가지 점수를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자기-효능감 점수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8이었고,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2($p < .0001$)이었다.

Beck의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이 검사는 Beck, Ward, Mendelson, Mock 및 Erbaugh(1961)가 우울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총 21개 문항의 자기보고형 검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영호와 송종용(1991)에 의해 번안된 한국판 Beck 우울척도를 사용했다. 한국판 Beck 우울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6이었고,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5($p < .0001$)이었다.

통계적 분석

한국판 SISST의 내적 합치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를 구하였으며, 반분신뢰도, 검사-재검사 신뢰도, 공존타당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자료들간의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한국판 SISST의 공존타당도는, 대인불안의 정서적, 행동적 혹은 인지적 측면을 재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판 SADS(II), 한국판 IAS, 한국판 SCS의 사회적 불안 하위

척도 및 공적 자의식 하위 척도, 사회적 자기 효능감 척도 등과의 Pearson 상관계수를 통해 알아보았다. 한국판 SISST의 구성타당도는, 대인불안에 대한 변별력, 변별타당도 및 요인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대인불안에 대한 한국판 SISST의 변별력을 확인하기 위해, 우선 한국판 SADS(II)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연구 대상 학생들을 대인불안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눈 후, 이들 두 집단이 한국판 SISST의 긍정형 점수, 부정형 점수, 전체 척도 점수 및 각 개별 문항들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지를 t 검정으로 알아보았다. 그리고 한국판 SISST가 대인불안에 특정한 사고내용을 재는지, 즉 변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판 Beck 우울척도와와의 Pearson 상관계수 및 여과상관계수(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s)를 구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판 SISST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자료들은 SAS/PC Version 6.04로 통계 처리되었으며, 유의 수준은 .01 미만으로 하였다.

결 과

각 하위 척도 점수와 개별 문항 간, 그리고 하위 척도 상호간의 상관계수

각 하위 척도와 개별 문항간의 상관계수는 표 1에 나와 있다. 표 1에서 보면, 한국판 SISST 긍정형의 경우 각 문항들과 하위 척도 간의 상관계수의 범위는 .25 ~ .71이었으며, 한국판 SISST 부정형의 경우에는 상관계수의 범위가 .39 ~ .75였다.

한국판 SISST 긍정형과 부정형 하위 척도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r = -.24, p < .001$)을 보였다.

신뢰도

한국판 SISST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긍정형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6이었고, 반분신뢰도는 .88($p < .0001$),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69(p

$< .0001$)였다. 부정형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1이었으며, 반분신뢰도는 .92($p < .0001$), 그리고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6($p < .0001$)이었다. 긍정형에 속하는 문항들을 역산하여 부정형의 문항과 하나로 합친 전체 척도의 경우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9였다.

공존타당도

한국판 SISST의 공존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인불안의 정서적, 행동적 혹은 인지적 측면을 재는 것으로 알려진 각종 검사들과의 상관계수를 구하였으며 (Clark, 1988),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한국판 SISST의 두가지 하위 척도 및 전체 척도는 한국판 SADS(II), 한국판 IAS 및 한국판 SCS의 사회적 불안 하위 척도 등 대인불안의 정서적 측면 혹은 행동적 측면을 재는 측정도구들과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대인불안의 인지적 측면의 하나인 사회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전체 점수 및 이성관계에 대한 자기-효능감 점수 모두와도 유의하게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공적 자의식 척도의 경우, 한국판 SISST 긍정형과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부정형 및 전체 척도와의 상관은 유의하였다.

대인불안에 대한 변별력 및 변별타당도

대인불안에 대한 한국판 SISST의 변별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판 SADS(II)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대인불안 수준이 높은 집단(대인불안 高 집단: $N=117$)과 대인불안 수준이 낮은 집단(대인불안 低 집단: $N=120$)으로 나누어 한국판 SISST 긍정형, 부정형 및 전체 척도, 그리고 각 개별 문항에 대해 t 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 대인불안 高 집단이 대인불안 低 집단에 비해 긍정형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고(각각의 평균 점수는 42.71점과 49.60점, $t(235)=6.47, p < .0000$), 부정형 점수(각각의 평균 점수는 40.50점과 30.64점, $t(209.7)=-8.64, p < .0001$)와, 전체 척도 점수(각각의 평균 점수는 87.79점과 71.01점, $t(221.5)=-10.41, p <$

표 1. 개별 문항과 각 하위척도 간의 상관행렬

K-SISST 긍정형		
문항번호 및 내용		상관계수
#2 나는 대개 여자들(여학생의 경우 남자들)에게 말을 아주 잘 걸 수 있다		0.46
#4 나는 점점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한다		0.50
#6 나는 아무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으며, 불안감도 없다		0.47
#9 나는 일단 말을 건네기 시작하면 그녀(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		0.56
#10 나는 걱정하기 보다는 그녀(그)를 사귀는 최선의 방법을 알아낼 수 있다		0.58
#12 예라 모르겠다! 최악의 사태가 일어난다고 해봐야 그녀(그)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겠지		0.34
#13 내가 그녀(그)에게 말을 걸고 싶어하는 것 만큼 그녀(그)도 나에게 말을 하고 싶을 것이다		0.48
#14 이번이 좋은 기회일 것이다		0.46
#17 내가 잃을 게 뭐 있어? 한 번 시도해 볼만 하지		0.54
#18 이 상황이 어색하기는 하지만, 나는 잘 해낼 수 있어		0.71
#24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0.57
#25 이번 일이 잘 되지 않더라도 큰 일이 나는 것은 아니야		0.46
#27 우리는 아마도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을 것이다		0.54
#28 어쨌든 우리는 서로 정말 잘 지낼 수 있을 지도 몰라		0.64
#30 아! 걱정을 떨쳐 버리자		0.25
K-SISST 부정형		
문항번호 및 내용		상관계수
#1 나는 할 말이 생각나지 않을 때 내 자신이 매우 불안해짐을 느낄 수 있다		0.54
#3 나는 내 자신이 웃음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0.39
#5 나는 그녀(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 지 정말 두렵다		0.56
#7 나는 못 견딜 정도로 겁이 난다		0.63
#8 그녀(그)는 아마 나에게 관심이 없을 것이다		0.61
#11 나는 여자들(여학생의 경우 남자들)을 만나는 일이 아주 편안하지는 않다. 그래서 틀림없이 이번 일을 그리치게 될 것이다		0.55
#15 만약에 이번에 대화를 하지 못한다면, 나는 정말로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0.55
#16 내가 하는 말이 아마도 어리석게 들릴 것이다		0.64
#19 아 - 나는 정말 이런 걸 하고 싶지 않아		0.48
#20 만약 그녀(그)가 나에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비참해질 것이다		0.69
#21 난 그녀(그)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야만 해. 그렇지 못하면 난 비참해질거야		0.60
#22 나는 정말로 말도 제대로 못하는 바보야		0.75
#23 나는 어쨌든 실패할 것 같다		0.65
#26 난 어색하고 일간이 같다. 그녀(그)는 이런 내 모습을 틀림없이 알아차리고 말 것이다		0.68
#29 나는 이 상황을 피하고 싶다		0.68

주: K-SISST: Korean version of Social Interaction Self-Statement Test

표 2. 한국판 SISST와 다른 척도간의 상관행렬

척도명	K-SISST(긍정형)	K-SISST(부정형)	K-SISST(전체)
SADS(II)	-.50***	.64***	.73***
IAS	-.37***	.65***	.65***
SCS			
사회적 불안	-.43***	.53***	.61***
공적 자의식	-.03	.28***	.21*
SSES(전체)	.59***	-.50***	-.69***
SSES(이성관계)	.63***	-.55***	-.74***
BDI	-.20*	.32***	.34***

주: K-SISST: Korean version of Social Interaction Self-Statement Test,
 SADS(II): 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Scale(II), IAS: Interaction Anxiousness Scale,
 SCS: Self-Consciousness Scale, SSES: Social Self-Efficacy Scale,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p < .01 ***p < .0001

표3. 각 문항별 평균, 표준편차, *t* 검증 결과

문항	대인불안 低 집단		대인불안 高 집단		<i>t</i> 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문항 1	2.58	.84	3.28	1.07	-5.63***
문항 2	3.31	.92	2.58	.99	5.84***
문항 3	3.30	1.10	3.68	.96	-2.98*
문항 4	3.43	.96	2.86	.95	4.60***
문항 5	2.42	.91	3.10	1.04	-5.39***
문항 6	2.89	1.05	2.01	.85	7.10***
문항 7	1.43	.62	2.02	.95	-5.65***
문항 8	2.16	.82	2.81	.95	-5.72***
문항 9	3.45	.82	2.73	.91	6.48***
문항 10	3.25	.88	2.63	1.00	5.06***
문항 11	1.81	.80	2.54	1.01	-6.15***
문항 12	2.88	1.23	2.80	1.15	.52
문항 13	3.22	.94	2.88	.94	2.82*
문항 14	3.36	.96	3.00	1.08	2.63*
문항 15	2.19	1.12	2.56	1.09	-2.61*
문항 16	1.79	.83	2.44	.99	-5.53***
문항 17	3.40	1.00	3.02	1.15	2.78*
문항 18	3.73	.77	3.05	1.45	5.64***
문항 19	1.88	.85	2.63	1.17	-5.68***
문항 20	2.37	1.03	2.93	1.18	-3.91***
문항 21	2.32	1.05	2.79	1.16	-3.29*
문항 22	1.60	.71	2.47	1.09	-7.25***
문항 23	1.62	.76	2.34	1.05	-6.06***
문항 24	3.28	1.02	2.80	1.09	3.43**
문항 25	3.63	.90	3.32	1.06	2.46
문항 26	1.64	.73	2.40	1.00	-6.76***
문항 27	3.20	.93	2.80	1.00	2.99*
문항 28	3.63	.73	3.14	1.00	4.29***
문항 29	1.54	.60	2.50	1.02	-8.73***
문항 30	2.90	1.14	3.09	1.06	-1.29

* $p < .01$ ** $p < .001$ *** $p < .0001$

0001)는 모두 유의하게 높았다. 대인불안 高 집단과 대인불안 低 집단의 문항별 평균, 표준편차 및 *t* 검증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에서 볼 수 있

듯이, 긍정형에 속하는 문항 12와 문항 30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문항들¹⁾에서 대인불안 高 집단과 대인불안 低 집단을 유의하게 잘 변별하고 있는

1) 긍정형에 속하는 문항 25의 경우 대인불안 高 집단이 대인불안 低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는 미약하나마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t(236)=2.46, p<.0146$.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집단간 차이 검증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판 SISST의 부정형 및 긍정형 모두 대인불안에 대한 변별력이 높다고 하겠다.

또한 한국판 SISST가, 다른 부정적인 정서와 달리 대인불안에 특정한 사고내용을 반영하는 지, 즉 변별 타당도를 확인해 보기 위하여, 대인불안과는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우울정도를 재는 한국판 Beck 우울척도와와의 Pearson 상관계수 및 여과상관계수를 구하였다. 한국판 SISST와 한국판 BDI의 Pearson 상관계수는, 표 2에 나와 있듯이, 한국판 SCS의 공적 자의식 하위 척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대인불안척도들이 한국판 SISST와 갖는 상관에 비해 낮기는 하지만, 긍정형($r=-.20, p<.002$), 부정형($r=.32, p<.0001$) 및 전체 척도($r=.34, p<.0001$) 모두와 유의하였다. 이러한 유의한 상관이, 우울과 대인불안 간의 상관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실제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새가지 대인불안척도(한국판 SADS(II), 한국판 IAS 및 한국판 SCS의 사회적 불안 하위 척도)와 한국판 Beck 우울척도가 유의한 상관(각각 순서대로, $r=.33, .22, .24$)을 보이므로, 한국판 SADS(II)를 통제변인으로 하여 한국판 Beck 우울척도와 한국판 SISST의 여과상관계수를 구하였다. 그 결과, 한국판 SISST 긍정형($partial\ r=-.04$), 부정형($partial\ r=.16$) 및 전체 척도($partial\ r=.15$)와의 상관이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그 반면에, 한국판 Beck 우울척도를 통제변인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판 SISST의 긍정형, 부정형 및 전체 척도 공히 새가지 대인불안척도 모두와 여전히 높은 여과상관을 유지하였다. 각각 순서대로, 한국판 SADS(II)의 경우, $-.47(p<.0001)$, $.61(p<.0001)$ 및 $.71(p<.0001)$ 이었고, 한국판 IAS의 경우 $-.33(p<.0001)$, $.64(p<.0001)$, $.64(p<.0001)$ 였으며, 한국판 SCS의 사회적 불안 하위 척도의 경우 $-.39(p<.0001)$, $.51(p<.0001)$, $.58(p<.0001)$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판 SISST가 우울정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며, 대인불안에 특정한 사고내용을 측정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요인구조

한국판 SISST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 분석을 하였다. 한국판 SISST의 30개 문항에 대한 측정결과에 공통변량 뿐만 아니라 문항 특유의 변량과 측정시의 오차가 포함된 고유변량이 상당한 정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되므로, 공통요인분석의 모형을 택하였으며, 다중상관제곱치를 공통분의 추정치(h^2)로 사용하였다. 기초 구조를 추출하기 위하여, 요인구조 모델에 대한 통계적 검증이 가능한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으며(이순목, 1995), 최종 요인구조를 결정하기 위해 기초 요인구조의 회전방식으로서 사각회전(orthoblique rotation; HKP=.5)을 사용하였다.

요인구조에 대한 Chi-square 검증 결과, Tucker-Lewis 값 및 요인의 해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5개의 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요인의 수가 5개일 경우 Chi-square 검증에서는 영가설을 기각할 것을 권하나, Tucker-Lewis 값은 .94로서 매우 높았다. 각 요인간 상관계수의 범위는, 표 4에서 보듯이, $-.003 \sim .35$ 였으며, 특히 요인 1과 요인 4($r=.35$), 요인 2와 요인 3($r=.33$) 및 요인 2와 요인 4($r=.31$)의 상관이 다소 높은 편이었다. 각 요인에 대한 해석의 지침은 먼저 구조계수(상관계수) 행렬(표 5)에서 상관계수가 .45 이상인 문항을 채택하였고,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두 요인 이상을 동시에 반영하는 문항들(문항 7, 문항 8, 문항 16, 문항 18, 문항 22, 문항 23, 문항 24)이 있었는데, 이 문항들의 형태계수(표준회귀계수)를 고려할 때 다른 5개의 문항과는 달리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던 문항 7 및 문항 22의 경우 해당되는 두 요인의 해석에 모두 반영시켰다. 요인 1은 총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공포'를 반영하는 사고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요인 2는 총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적 교류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반영하는 사고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요인 3은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긍정적 결과에 대한 예견'을 반영하는 사고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요인 4는 총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패 예상 및 회피

표 4. 요인간 상관행렬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1	1.00	-0.18	0.05	0.35	0.14
요인 2		1.00	0.33	-0.31	0.23
요인 3			1.00	-0.19	0.25
요인 4				1.00	-0.003
요인 5					1.00

표 5. 요인구조계수 행렬

문항번호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문항 20	.79	(.47)			
문항 21	.76				
문항 5	.65				
문항 15	.64				
문항 26	.61				
문항 22	.59			.66	
문항 16	.56			(.47)	
문항 8	.53			(.48)	
문항 7	.52			.53	
문항 1	.50				
문항 3	.50				
문항 9		.72			
문항 2		.70			
문항 10		.64			
문항 18		.60	(.50)		(.51)
문항 6		.59			
문항 4		.55			
문항 24		(.50)	.56		
문항 27			.75		
문항 13			.65		
문항 28			.62		
문항 14			.48		
문항 29				.89	
문항 19				.70	
문항 23	(.48)			.67	
문항 11				.58	
문항 17					.71
문항 12					.67
문항 25					.61
문항 30					.50

() 속의 숫자는 표준회귀계수가 .35 미만으로 낮아서 해당 요인의 해석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요인1: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공포(1, 3, 5, 7, 8, 15, 16, 20, 21, 22, 26)

요인2: 사회적 교류에 대한 자기 효능감(2, 4, 6, 9, 10, 18)

요인3: 긍정적 결과에 대한 예견(13, 14, 24, 27, 28)

요인4: 실패 예상 및 회피욕구(7, 11, 19, 22, 23, 29)

요인5: 합리적 대처(12, 17, 25, 30)

표 6. 각 요인의 설명변량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독자 변량	공유 변량	독자 변량	공유 변량	독자 변량	공유 변량	독자 변량	공유 변량	독자 변량	공유 변량
19.16	15.50	11.07	18.95	10.13	11.43	17.60	21.14	9.32	6.31

욕구'를 나타내는 사고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요인 5는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합리적 대처'를 반영하는 사고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요인의 설명변량을 제시한 표 6을 보면, 다른 요인과 공유하지 않는 독자변량에서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공포' 요인이 19.16%로서 가장 큰 변량을 설명하고 있으며, 독자변량 및 공유변량을 합한 합성변량에서는 '실패 예상 및 회피욕구' 요인이 38.74%로서 가장 큰 변량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독자 변량으로 보나 합성 변량으로 보나, '합리적 대처' 요인이 가장 작은 변량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는 물론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공포' 요인과 '실패 예상 및 회피 욕구' 요인간, 그리고 '사회적 교류에 대한 자기 효능감' 요인과 '긍정적 결과에 대한 예견' 요인간에 각각 다소 높은 정적 상관이 있다는 점과, '사회적 교류에 대한 자기 효능감' 요인과 '실패 예상 및 회피 욕구' 요인 간에 부적 상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논 의

본 연구는 대인불안의 인지적 내용을 평가하는 한국판 도구가 필요하다는 현실에 착안하여, 외국에서 이루어진 대인불안의 인지적 연구들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으면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자기 진술 검사(SISST)를 도입하여 한국판 검사를 제작하고, 그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한국판 SISST 긍정형과 부정형 모두 내적 합치도, 반분신뢰도 및 검사-재검사 신뢰도 면에서 매우 신뢰

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인불안의 정서적, 행동적 혹은 인지적 측면을 재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판 SADS(II), 한국판 IAS, 한국판 SCS의 사회적 불안 하위 척도 및 사회적인 자기 효능감 척도와와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 부정형이 긍정형 하위 척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기는 했지만, 두가지 모두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국판 SISST의 두가지 하위 척도 모두 대인불안과 관련된 측면을 측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존타당도를 입증한 결과로 생각된다. 대인불안의 정도를 측정하는 여러 척도들과 원판 SISST가 높은 상관을 보인다는 결과는 대학생 집단 및 임상집단을 사용한 많은 연구들과, 대인불안의 자동적 사고내용을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측정한 선행 연구들 대부분(Bruch et al., 1993; Dodge et al., 1988; Glass & Furlong, 1990; Glass et al., 1982; Osman et al., 1992; Zweig & Brown, 1985)에서도 이미 보고된 바 있으며, 한국판 SISST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한국판 SISST의 긍정형 및 부정형 하위 척도, 전체 척도, 그리고 모든 개별 문항들이 대인불안에 대하여 변별력이 있는 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러한 점수들이, 한국판 SADS(II) 평균값에 의해 비교적 덜 엄격하게 나누어진 대인불안 고 집단과 대인불안 저 집단 간을 유의하게 변별하는 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전체 척도, 긍정형 및 부정형 하위 척도, 그리고 거의 모든 개별 문항들이 두 집단을 유의하게 잘 변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판 SISST의 부정형 및 긍정형 모두 대인불안에 대한 변별력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이처럼 한국판 SISST가 대인불안에 대해 높은 변별력을 보인다는 결과는, 사고기술이 빈약함과 동시에 대인불안 수준이 높은 집단이, 사고

기술이 뛰어남과 동시에 대인불안 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SISST의 긍정형 점수는 유의하게 높았지만, 부정형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다고 보고한 Glass 등(198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한국판 SISST가 다른 부정적인 정서와는 상관없이 대인불안에 특정한 사고 내용을 반영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인불안과는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우울정도를 재는 한국판 Beck 우울척도와 대인불안척도를 대비시켜 상호 영향력을 배제시키는 여과상관계수를 구하였다. 그 결과, 한국판 SISST는 우울정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대신, 대인불안에 특정한 사고 내용을 측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판 SISST의 변별타당도가 확인되었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Bruch 등(1993)은 대학생 및 임상 환자를 대상으로 대인불안과 우울의 인지적 특정성을 검증한 결과, 우울에 특정한 부정적 사고는 오직 우울증상과 공변하였는데 비해, 대인불안에 특정한 부정적 사고는 대인불안 및 우울 모두와 함께 공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 결과에 대해 Bruch 등(1982)은 독특한 인지적 결과가 특정 정서상태 한가지에 의해서만 유발되었다기 보다는 대인불안과 우울의 정서적인 혼입 혹은 상호작용을 통해 나왔을 것이라고 잠정적으로 해석하였다. 그들의 결과 및 잠정적인 해석은 본 연구의 결과와는 다른 것으로 보여지며, 어느 입장이 현실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앞으로 많은 후속적인 연구들이 기대된다. 어쨌든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판 SISST에 의해 측정되는 사고 내용이 우울정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대인불안에 독특한 것이라는 점에서, 인지적인 내용에 따라 특정한 심리적 장애가 결정된다는 인지적 내용-특정성 가설을 지지한다고 하겠으며, 앞으로의 연구들에서 이 가설을 보다 분명하게 입증하는 데에 주된 측정도구로 이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판 SISST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공포', '사회적 교류에 대한 자기 효능감', '긍정적 결과에 대한 예견', '실패 예상 및 회피 욕구' 및 '합리적 대처' 등을 반영하는 5 요인구조로 나타났다. Glass 등(1982)의 연구에서는 주성분분석 및 직교 회전을 적용한 결

과, 4 요인구조가 나타났으며, 각 요인은 '자기 비하', '긍정적 예견',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공포', '대처'의 내용을 포함했다. 또 Osman 등(1992)의 연구에서는 주성분분석 및 직교회전을 한 결과, 문항 4가 어떤 요인에도 포함되지 않은 점을 제외하면 SISST의 실제 두가지 하위 척도와 일치되는 내용의 2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렇듯 요인의 수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내용면에서는 서로 많은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추출된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공포' 요인은, Glass 등(1982)의 연구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공포' 요인에 부하되었던 문항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기 비하' 요인에 해당되는 문항들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전자에 포함되었던 문항들의 요인상관계수가 후자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바 제 1 요인을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공포'라고 이름붙였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요인인 '사회적 교류에 대한 자기 효능감' 요인은 Glass 등(1982)의 연구에서는 추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요인이며, 본 연구에서 이 요인과 높은 상관을 보인 문항들은 Glass 등(1982)의 연구에서는 어떤 특정 요인에도 포함되지 않았었다. 본 연구의 세 번째 요인인 '긍정적 결과에 대한 예견' 요인은 문항 24가 포함된 것을 제외하면 Glass 등(1982)의 '긍정적 예견' 요인과 문항구성 및 내용면에서 동일하다. 본 연구의 네 번째 요인인 '실패 예상 및 회피 욕구' 요인은 Glass 등(1982)의 '자기 비하' 요인과 일부 비슷하다. 본 연구의 다섯 번째 요인인 '합리적 대처' 요인은 문항 18과 문항 30이 추가된 것을 제외하면 Glass 등(1982)의 '대처' 요인과 문항구성 및 내용면에서 똑같다. 또 Osman 등(1992)의 요인분석 결과와도 비교하면, 본 연구에서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공포', '실패 예상 및 회피 욕구' 요인은 Osman 등(1992)의 '부정적 자기 진술' 요인에, 그리고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교류에 대한 자기 효능감', '긍정적 결과에 대한 예견' 및 '합리적 대처' 요인들은 Osman 등(1992)의 '긍정적 자기 진술' 요인에 해당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와 요인의 추출 및 회전방식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유사한 요인구조를 산출하였으며, 선행 연구들의

2 요인구조 및 4 요인구조에 비해 더 세분화된 요인구조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본 연구의 요인분석 결과가 Glass 등(1982)의 연구와 다르게 나온 데에는 미국과 한국의 문화간 차이, 측정방식이나 측정도구의 차이, 요인구조의 추출 및 회전방식의 차이 혹은 표본 자체의 차이 등이 일부 기여했을 수 있다. 여하튼 한국판 SISST는 한 문항도 빠짐없이 각각 한가지 이상의 요인을 구성하고 있으며, 원판 SISST의 요인구조를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판 SISST가 원판에 비해 구성타당도가 더 높을 가능성이 시사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Hong과 Cho(1998)의 최근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 대학생 213명을 대상으로 한국판 SISST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각 요인들간에 상관이 없는 4 요인구조 모델(Glass et al., 1982)은 수집된 자료에 부합되지 않았으나(CFI=.720; RMSEA=.130, MacCallum & Hong, 1997), 5 요인구조 모델(CFI=.960; RMSEA=.040)과, 5개 요인 중 사회적 교류에 대한 자기 효능감, 긍정적 결과에 대한 예견 및 합리적 대처 등 3개의 요인은 긍정형 자기 진술에, 그리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공포와, 실패 예상 및 회피 욕구 등 2개 요인은 부정형 자기 진술에 부하되는 위계적인 요인구조 모델(CFI=.960; RMSEA=.039) 양자 모두 수집된 자료에 아주 잘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분명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영어권에 속하는 새로운 표본을 대상으로 원판 SISST를 실시했을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겠으나, 지금까지 나온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적어도 한국판 SISST의 경우 각 요인간에 상관이 없는 4 요인구조 모델에 비해 5 요인구조 모델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보완하여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이 대학생이라는 점에서 일반인 및 임상 환자군에게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둘째, 대인불안 상황을 '처음 만난 매력적인 이성과의 만남'에 국한시켰다는 점에서 앞으로 다른 대인불안 상황

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그렇게 한 이유는,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검사 실시와 자료 수집이 용이하다는 점 외에, 선행연구(조용래, 원호택, 1997)에서 처음 만난 매력적인 이성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대학생들에게 있어 대표적인 대인불안 유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었다. 셋째, 대인불안의 인지적 내용을 측정하는 방식이 가상적인 대인관계 상황에서의 심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측정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도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가 나오겠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런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인불안의 사고내용을 실제 사회적 상호작용 기간에 측정한 연구나 혹은 다른 측정방법을 이용한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몇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한국판 SISST는 대학생의 경우 대인불안의 인지적 내용을 측정하는데 있어 매우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참고문헌

- 권석만(1993). 대학상담장면에서의 인지치료의 활용 - 치료적 단기상담모델로서의 인지치료. 학생연구, 28, 61-79.
- 권석만(1994a). 임상심리학의 최근 동향. 1994년도 한국 심리학회 동계 연수회 자료집(심리학 연구의 최근 동향), 213-242.
- 권석만(1994b). 한국판 자동적 사고척도의 개발과 활용. 학생연구, 29, 10-25.
- 권석만(1995). 한국판 역기능적 태도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및 요인구조. 심리과학, 3, 100-111.
- 김남재(1995). 대인불안의 측정에 대한 연구. 한국 심리학회지: 임상, 14, 73-82.
- 신민섭, 소준현, 홍강의(1996). 청소년의 자아상과 사회적 민감성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자아상-우울-불안-사회적 민감성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 소아 · 청소년 정신의학, 7, 61-67.
- 신현균, 원호택(1991). 비합리적 사고와 귀인양식에 있어서 우울집단과 불안집단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 269-285.
- 이순목(1995). 요인분석 I - Exploratory Factor Analysis를 중심으로-. 서울, 학지사.
- 이영호, 송종용(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 98-113.
- 이옥정(1988). 대인불안에서 주의 방향이 Stroop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정운(1988). 대인불안에서 자기표현동기가 귀인과 자기장에 책략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정운(1996). 사회불안증에 대한 인지행동치료와 노출치료의 효과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주일(1988). 이분척도와 Likert형 7점 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반응양식의 비교: 자기검색척도와 기의식척도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훈진, 원호택(1995). 편집성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4, 83-94
- 정미순, 이봉건(1997). 사회공포증에 대한 인지행동치료와 지지처치의 비교. 한국심리학회 산하 임상심리학회 '97 하계 학술대회 자료집, 101-105.
- 조용래, 원호택(1997). 대인불안에 대한 인지적 평가: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자기 효능감 척도의 개발과 타당도에 관한 연구. 심리학의 연구문제, 제 4호, 397-434
- 최정훈, 이정운(1994). 사회적 불안에서의 비합리적 신념과 상황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6, 21-47.
- 홍세희, 조용래(미발표). 한국판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자기 진술 검사에 대한 확인적인 요인분석.
- Alden, L. E., Teshuk, M., & Tee, K.(1992). Public self-awareness and withdrawal from social interaction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6, 249-267.
- Arnkoff, D. B., & Glass, C. R.(1989). Cognitive assessment in social anxiety and social phobia. *Clinical Psychology Review*, 9, 61-74.
- Beck, A. T., Brown, G., Steer, R. A., Eidelson, J. I., & Riskind, J. H.(1987). Differentiating anxiety and depression utilizing the Cognition Checklist.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6, 179-183.
- Beck, A. T., Ward, C. H., Mendelson, M., Mock, J., & Erbaugh, J.(1961). An inventory for measuring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 561-606.
- Beck, A. T., & Weishaar, M.(1989). Cognitive Therapy. In A. Freeman, K. M. Simon, L. E. Bentler, & H. Arkowitz(Eds.). *Comprehensive Handbook of Cognitive Therapy*.(pp.21-36) New York Plenum Press.
- Bruch, M. A., Mattia, J. I., Heimberg, R. J., & Holt, C. S.(1993). Cognitive specificity in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supporting evidence and qualifications due to affective confounding.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7, 1-21.
- Clark, D. A.(1988). The validity of measures of cognit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2, 1-20.
- Dodge, C. S., Hope, D. A. Heimberg, R. G., & Becker, R. E.(1988). Evaluation of the Social Interaction Self-Statement Test with a social phobic populat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2, 211-222.
- Fenigstein, A., Scheier, M. F., & Buss, A. H.(1975).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assessment and theo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 522-527.
- Glass, C. R., & Arnkoff, D. B.(1994). Validity issues

- in self-statement measures of social phobia and social anxiety.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2, 255-267.
- Glass, C. R., Merluzzi, T. V., Biever, J. L., & Larsen, K. H.(1982). Cognitive assessment of social anxiet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elf-statement questionnair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6, 37-55.
- Glass, C. R. & Furlong, M.(1990). Cognitive assessment of social anxiety: affective and behavioral correlate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 365-384.
- Greenberg, M. S., & Beck, A. T.(1989). Depression and anxiety: a test of the content-specificity hypothe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8, 9-13.
- Haaga, D. A. F., & Davison, G. C.(1993). An appraisal of rational-emotive 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215-220.
- Heimberg, R. G.(1994). Cognitive assessment strategies and the measurement of outcome of treatment for social phobia.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2, 269-280.
- Heimberg, R. G., Bruch, M. A., Hope, D. A., & Dombeck, M.(1990). Evaluating the states of mind model: comparison to an alternative model and effects of method of cognitive assessment.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 543-557.
- Hong, S., & Cho, Y(1998). Latent structure of the Social Interaction Self-Statement Test.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Submitted for publication.
- Ingram, R. E. & Hollon, S. D.(1986). Cognitive therapy for depression from an information processing perspective. In R. E. Ingram(Ed.). *Information Processing Approaches to Clinical Psychology*. New York: Academic Press.
- Ingram, R. E., & Kendall, P. C.(1987). The cognitive side of anxiet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1, 523-536.
- Jones, R. G.(1969). A factorial measure of Ellis' irrational belief system with personality and adjustment correlates. *Dissertation Abstract International* 29(11-B), 4379-4380
- Kassinove, H.(1986). Self-reported affect and core irrational thinking: A preliminary analysis. *Journal of Rational-Emotive Therapy*, 4, 119-130.
- Kendall, P. C., & Hollon, (1981). Assessing self-referent speech: Methods in measurement of self-statements. In P. C. Kendall & S. D. Hollon(Eds.), *Assessment Strategies for Cognitive-Behavioral Interventions*(pp.85-118). New York: Academic Press.
- Laurent, J., & Stark, K. D.(1993). Testing the cognitive content-specificity hypothesis with anxious and depressed youngste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 226-237.
- Leary, M. R.(1983). A brief version of th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9, 371-375.
- Leibowitz, M. R., Gorman, J. M., Fyer, A. J., & Klein, D. F.(1985). Social phobia: review of a neglected anxiety disorder.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2, 729-736.
- MacCallum, R. C., & Hong, S.(1997). Power analysis in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using GFI and AGFI.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32, 193-210.
- Mahone, E. M., Bruch, M. A., & Heimberg, R. G. (1993). Focus of attention and social anxiety: the role negative self-thoughts and perceived positive attributes of the other.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7, 209-224.
- Osman, A., Markway, K., & Osman, J. R.(1992).

-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Social Interaction Self-Statement Test in a college sample. *Psychological Reports*, 71, 1171-1177.
- Smith, T. W.(1982). Irrational beliefs in the cause and treatment of emotional distress: A critical review of the rational-emotive model. *Clinical Psychology Review*, 2, 505-522.
- Smith, T. W., & Allred, K.(1986). Rationality revisited: A reassessment of the empirical support for the rational-emotive therapy. *Advances in Cognitive-Behavioral Research and Therapy*, 5, 63-87.
- Smith, T. W. & Zurawski, R. M.(1983). Assessments of irrational beliefs: The question of discriminative validit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9, 976-979.
- Turner, S. M., Beidel, D. C., & Larkin, K. T.(1986). Situational determinants of social anxiety in clinic and nonclinic samples: Physiological and cognitive correlat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 523-527.
- Watson, D., & Friend, R.(1969). Measurement of social-evaluative anxie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3, 448-457.
- Zurawski, R. M., & Smith, T. W.(1987). Assessing irrational beliefs and emotional distress: Evidence and implications of limited discriminant valid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 224-227.
- Zweig, D. R., & Brown, S. D.(1985). Psychometric evaluation of a written stimulus presentation format for the Social Interaction Self-Statement Test.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9, 285-295.

**Cognitive Assessment of Social Anxiety(II):
A Study on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Social Interaction Self-Statement Test**

Yong-Rae Cho

Eun-Jung Kim

Ho-Taek Won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Chosun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the recent emphasis on cognition in psychopathology, there is an increased need for the assessment of cognitive contents in the study and treatment of social anxiety. In this context, the present study is purported to construct the Korean version of Social Interaction Self-Statement Test(K-SISST) and to examine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SISST was translated into Korean, and several self-report inventories including K-SISST were administered to 278 college students. The results show that K-SISST is highly reliable in terms of internal consistency, split-half reliability, and test-retest reliability, and that it has good concurrent validity. Total score, two subscale scores, and most individual items of K-SISST have excellent ability to discriminate between social anxiety-high and social anxiety-low groups, and it is highly likely to assess thought contents specific to social anxiety and directly unrelated to the level of depression; therefore, these support good discriminat validity of K-SISST. Factor analysis reveals that K-SISST has five factors labele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elf-Efficacy of Social Exchange', 'Anticipation of Positive Consequences', 'Expectation of Failure and Desire for Avoidance', and 'Rational Coping'. In conclusion, K-SISST appears to be a highly reliable, valid measure to assess cognitive contents of social anxiety.